

## 소설자료를 통해 본 20세기 한국어의 부정문 사용양상

### <목차>

국문요약

핵심어

1. 들어가기

2. 자료

3. 연대별 부정문 사용의 추이(1) ; ‘안’ 부정

4. 연대별 부정문 사용의 추이(2) ; ‘못’ 부정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s

### <국문요약>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문 사용의 양상에 대하여 (1) 형태 및 표기적 관점에서 본 부정서술어의 사용, (2) 부정문의 유형과 텍스트의 성격을 양측으로 살펴본 부정문 사용(3) ‘못’ 부정문과 ‘-ㄴ 수 없다’ 구문의 사용 빈도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였다.

1) 부정 서술어의 표기는 ‘아니하-, 아니-, 안하-, 앓-’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니하-’와 ‘앓-’의 사용율이 1920년대에 급격한 역전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아니하-’의 사용율이 감소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된다.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앓-’의 재구조화가 1920년대 이후 부정서술어로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안’ 부정의 선행부정은 회화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는데 1920년대 텍스트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 부정서술어 사용과 더불어 1920년대가 이전 시기와 이후의 부정문 사용 변화의 한 지표가 되는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못’ 부정은 부정문 전체에서 후행부정이 선행부정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이 연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못’ 부정을 취하는 용언의 품사, 조어법상의 특성에 따른 선행부정의 제약은 형용사, 보조용언, 파생용언 및 합성용언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개별 어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5) ‘못’ 부정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ㄴ 수 없-’은 1920년대에 들어서 그 사용율이 높아져 ‘못’ 후행부정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후 ‘-ㄴ 수 없-’ 구문은 ‘못’ 후행부정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율의 추이에 있어서는 ‘못’ 후행부정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핵심어: 안-부정, 못-부정, 선행부정, 후행부정, 텍스트 구조

## 1. 들어가기

한국어의 부정문<sup>1)</sup>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명사 부정과 용언 부정의 차이 및 그 발달 과정,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한편 현대어에 대한 논의에서는 1) ‘안, 못, 안하다, 못하다’ 등 부정부사 및 부정서술어로 구성되는 통사적 부정과 ‘모르다, 없다, 불이행, 미완료’ 등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에 보이는 어휘적 부정을 함께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부정문의 범위 획정 문제<sup>3)</sup> 2) 서술어의 어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선행부정과 후행 부정의 분포 제약<sup>4)</sup> 3)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등가성 여부<sup>5)</sup>, 4) 후행부정에 나타나는 부정 용언 앞의 ‘-지’의 통사적 성격<sup>6)</sup> 5) 부사 및 수량사와의 공기관계와 관련하여 부정의 의미해석 및 부정소의 작용 범위<sup>7)</sup> 등이 주된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통시적 연구가 차자표기 자료부터 근대어 자료에 이르기까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에 바탕을 둔 논의였음에 비하여 현대어 연구는 의미해석 및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논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기술 및 해석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어의 부정문에 대해 많은 논의,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조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많은 사회, 문화적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어도 많은 변화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20세기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1900년대의 한국어와 1990년대의 한국어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현 시점에서 20세기 한국어의 변화 양상에 대한 미시적인 고찰이 필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南潤珍(2009)는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연속적 실체체로서 20세기 한국어 부정문 사용의 흐름을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거기서 제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문 사용은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선행부정은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후행부정은 완만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3) ‘못’ 부정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ㄴ 수 없-’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사용율이 높아져 ‘못’ 후행부정을 상회하게 되었다. 4) 부정 서술어의 표기를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 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아니하다’의 사용율이 감소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설 텍스트에서 보이는 부정문 사용의 흐름

---

1) 한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소의 위치에 따라 先行부정과 後行부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선행부정은 부정소가 서술어 앞에 오는 부정문으로서 短形 부정 혹은 單文 부정이라고도 불리운다. 후행부정은 일반적으로 ‘서술어 어간+ 연결어미 「-지」+ 부정소’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문으로서, 長形 부정 혹은 複文 부정이라고도 불리운다. 본고에서는 이들 명칭 가운데 가장 記述的이라고 생각되는 先行부정, 後行부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2) 南豐鉉(1976), 安秉禧(1959), 黃炳淳(1980) 등

3) 서정수(1994), 김동식(1980), 임홍빈(1973, 1987) 등

4) 김인숙(1998), 구종남(1993) 등

5) 송석중(1977), 이기용(1979), 김동식(1980), 임홍빈(1987) 등

6) 김동식(1980), 임홍빈(1973, 1987)

7) 김동식(1981), 서상규(1984), 서정수(1994) 등

을 텍스트의 성격 및 부정문의 유형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검토하고 부정서술어 표기의 양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南潤珍(2009)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ㄱ. 형태 및 표기에 따른 부정서술어의 사용 실태
  - ㄴ. 부정문의 유형과 텍스트의 성격을 양측으로 살펴본 부정문 사용 실태
  - ㄷ. ‘못’ 부정문과 ‘-ㄴ 수 없다’ 구문의 사용 빈도의 추이

## 2. 자료

자료로는 南潤珍(2009)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에서 구축, 공개한 「21세기 세종계획」의 공개 코퍼스를 이용한다. 공개된 「세종말뭉치」에서는 연대별 균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20세기 텍스트들을 일괄적으로 「현대국어」로 분류하여 코퍼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역사자료로 분류되어 있는 20세기 초반의 新小說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각 연대별 텍스트양이 불균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개된 「세종말뭉치」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소설 텍스트를 더하여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설 텍스트를 10년 단위로 분류하고 각 10년간의 텍스트 양이 20만 어절 전후가 되도록 표본 코퍼스를 재구성하였다.

이들 텍스트의 내역은 [표1]과 같다<sup>8)</sup>.

[표 1] 표본 코퍼스의 내역

연대	작품수	크기(어절)	연대	작품수	크기(어절)
1900년대	13	200,070	1950년대	39	197,350
1910년대	14	193,534	1960년대	31	200,259
1920년대	51	200,108	1970년대	28	200,017
1930년대	42	252,555	1980년대	30	200,067
1940년대	30	147,905	1990년대	37	200,100
			합계(전체)	315	1,991,965

## 3. 연대별 부정문 사용의 추이(1) ; ‘안’ 부정

여기서는 부정부사 ‘아니’ 혹은 부정서술어 ‘아니하-’에 의해 구성되는 부정문의 연대별 사용양상을 살펴본다. 조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어휘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2) ㄱ. 그 구석이가 죽은 건 참 안됐군.< 60-2CE00015-3>
  - ㄴ. 안 돼! <20-Ab000460>
  - ㄷ. 보관하는 수속도 귀치않고 해서<20-AAe000278>
  - ㄹ. 고고 경감한테 시집가서 괜티않게 디넨대더라<50-Ab000192>

### 3.1. 형태 및 표기의 측면에서 본 부정서술어 ‘아니하다’ 사용의 추이

부정부사 ‘아니’와 ‘하-’로 구성되는 부정서술어 ‘아니하-’는 ‘아니하->안하->않-’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영(2004)에 따르면 ‘아니하-’가 ‘않-’으

8) 작품 목록은 南潤珍(2009)를 참조하기 바람

로 再構造化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인데, 20세기 소설자료를 검토해 보면, 재구조화가 일어난 뒤인 20세기 초반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부정서술어의 형태는 부정부사 ‘아니’의 형태, 부정부사와 부정서술어의 축약 여부에 따라 1) 아니하- 2) 아니- 3) 안하- 4) 앓-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2) ‘아니-’는 지정사 ‘아니-’와 형태가 같지만 ‘아니는’과 같은 활용형이 존재하고 부정 보문자 ‘-지’가 선행하는 것 등을 볼 때 지정사 ‘아니-’와는 구별되는 부정서술어로서 ‘아니하다’에서 ‘하-’가 나타나지 않은 형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3)에 그 예를 보인다.

(3) ㄱ. 돈이 되얏스면 거긔 가서 마시지 아니라나 <10-PABB0020>

ㄴ. 쯔 못지도 아니는 말로 군자가 ... 기싱과 백년 금실을 맺엿다 햏야 <00-Ae000258>

한편 1900년대부터 1950년대의 텍스트에는 부정부사가 ‘안’의 형태를 취하면서 ‘하다’의 어간이 나타나지 않는 (4)와 같은 용례가 보인다.

(4) ㄱ. 그들은 거를 힘이 나지 안았다. <20-Ab000487>

ㄴ. 글세요 그것은 조건을 붓치고 십지가 안습니다 <30-Aa000688>

이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아니하-: 아니-’의 대응관계와 평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안하-’에서 ‘하’가 나타나지 않은 부정서술어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앓-’의 이표기형으로 보아 표기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활용형들과 이 시기에 사용된 ‘앓다’의 활용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까지의 텍스트에 출현한 (4)와 같은 유형의 활용형은 대표적인 것으로 ‘안는, 안소, 안어서, 안아, 안으면’ 등이 있다.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ㄴ, ㄸ’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한정된다는 점이 주목된다<sup>9)</sup>. 앞에 [h]가 오더라도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자음들인 것이다. 선행자음 [h]에 의한 자음 변화가 확인되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안코, 안토록, 앓고, 앓도록’으로 나타나서 어간 ‘앓-’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부정서술어의 한 형태로 ‘안-’를 설정한다면 이 형태는 음운론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쓰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안-’가 ‘앓-’의 이표기형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제한된 음운론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한편 (4)와 같은 유형에서 모음어미와 결합한 경우는 모두 분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시기의 텍스트들에서 ‘앓-+모음어미’ 활용형들이 ‘앓어서, 안혀서’ 등 분철과 연철표기를 동시에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하여 표기하지 않은 ‘ㅎ’의 존재를 의식한 결과라고 해석한다면 (4)와 같은 경우는 ‘앓다’의 이표기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4)와 같은 경우를 ‘앓-’의 ‘ㅎ’이 표기에 반

9) ‘ㄴ, ㄸ’외의 자음어미가 연결된 것으로는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안고’의 예가 두 개 보인다. 예외로 보기로 한다

영되지 않은 이표기형으로 본다. 따라서 부정서술어의 형태를 1) 아니하- 2) 아니- 3) 안하- 4)않- 네 유형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들 네 가지 부정서술어는 다양한 표기형을 가진다. 표기의 차이는 1) ‘아니’ 및 ‘않+모음어미’의 연철, 분철, 중철 2) ‘안하-’의 ‘안’ 및 ‘않다’의 ‘않’의 호표기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음 (5)-(8)에 그 예를 보인다.

(5) 아니하-의 이표기형

- ㄱ. 밤낮 쉬지 아니하고 줄줄 흘러넘쳐 가는 물이라 <00-Ae000165>
- ㄴ. 혼구하도록 드러 오지를 안이하느니라 <00-PABB0003>
- ㄷ. 청주집에게 큰 시비가 도라오지 안이하겟소<00-PABB0003>
- ㄹ. 장가를 드지 않이하고 아다다를 꼬여온 이유는<20-AE000161>

(6) 아니-의 이표기형

- ㄱ. 쏘 못지도 아니는 말로 군자가 근일에 주식에 참혹하야 <00-Ae000258>
- ㄴ. 이동집이 과히 미련치는 안닌 위인이라<00-PABB0003 >

(7) 안하다- 이표기형

- ㄱ. 명예 훼손이 되는 기사야 여간 신중히 안해 가지고는 <20-Ab000225>
- ㄴ. 뼈를 건드리지는 않해서 절름바리가 될 염려는 없다고 <40-Ab000211>

(8) 않다- 이표기형

- ㄱ. 눈을 붙인 것이 몇 시간 되지도 않았었다. <20-AAe000278>
- ㄴ. 지금 자기의 부인이 된 귀분이를 불러내어 보이지도 안했었다 <20-Ab000297>
- ㄷ. 경애가 민수와 약혼 하겠다든 것을 반대하지 안었더냐? <30-Aa000688>
- ㄹ. 죽었는가 혹시 죽지 안넋드릭도 못된 길로 들어갔는가 흠이라 <10-PABB0009>
- ㅁ. 구지 그를 말니지 않코 ... 도리혀 ... 바라볼 뿐이었다.<20-Ab00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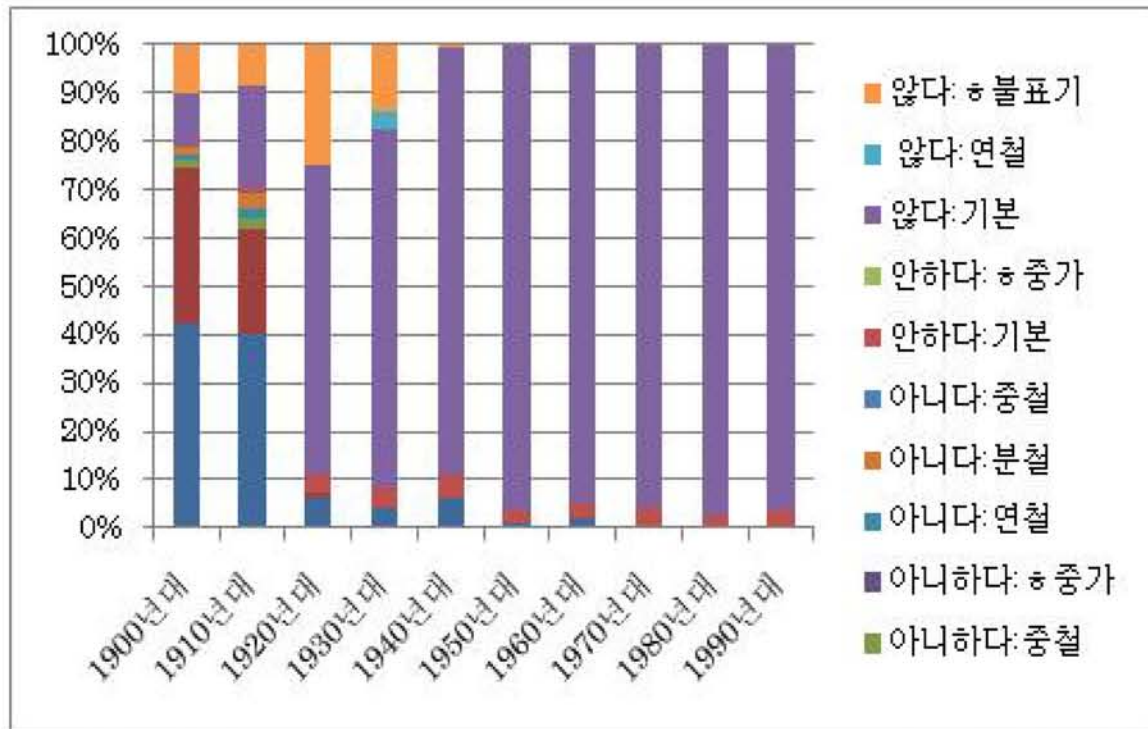
이들 각 유형의 연철, 분철, 중철에 따른 연대별 빈도를 보이면 다음 [표2]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2]부정서술어의 형태 및 표기형 연대별 빈도

연대 \ 표기	아니하다				아니다			안하다		않다		
	연철	분철	중철	호중가	연철	분철	중철	기본	호중가	기본	연철	호불표기
1900년대	524	404	20	0	11	24	2	3	0	133	0	127

1910년대	459	245	25	0	23	35	0	13	0	238	0	101
1920년대	97	13	0	3	0	0	0	53	0	972	0	380
1930년대	86	0	1	0	0	0	0	90	1	1591	75	300
1940년대	75	0	0	0	0	0	0	57	1	1050	1	9
1950년대	16	0	0	0	0	0	0	52	0	1765	0	5
1960년대	36	0	0	0	0	0	0	56	0	1663	0	0
1970년대	5	0	0	0	0	0	0	57	0	1425	0	0
1980년대	3	0	0	0	0	0	0	44	0	1686	0	0
1990년대	3	0	0	0	0	0	0	61	0	1805	0	0
합계	1304	662	46	3	34	59	2	486	2	12328	76	922

[그래프1] 부정서술어의 표기형 연대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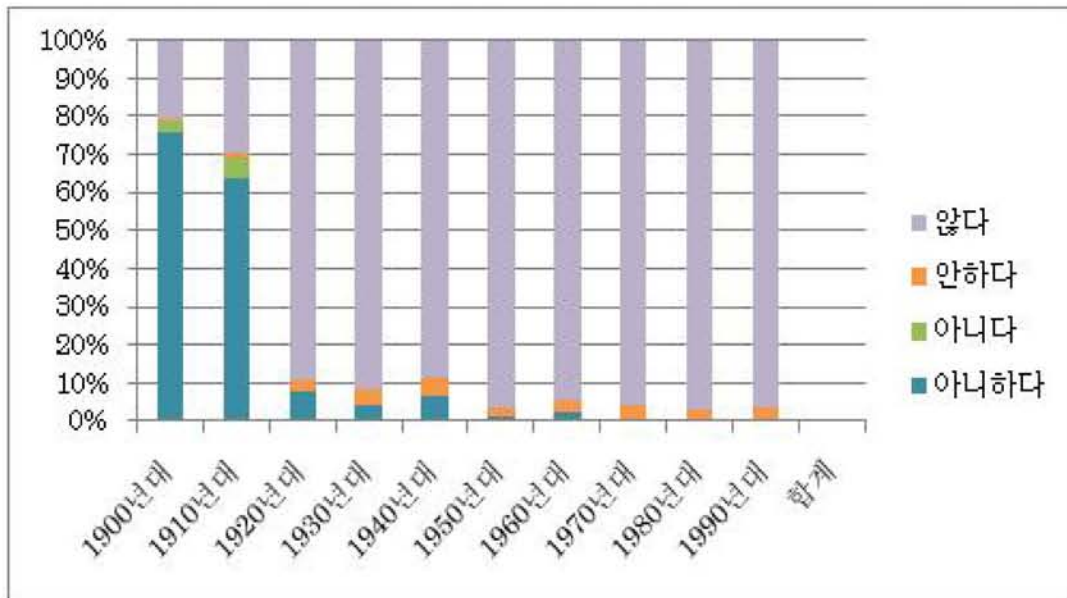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부정서술어 사용의 추이를 부정서술어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3] 및 [그래프2]와 같다

[표 3] 부정서술어 형태의 연대별 빈도

연대 \ 형태	아 니 하 다	아니다	안하다	않다	합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00년대	948	37	3	260	1248
1910년대	729	58	13	339	1139
1920년대	113	0	53	1352	1518
1930년대	87	0	91	1966	2144
1940년대	75	0	58	1060	1193
1950년대	16	0	52	1770	1838
1960년대	36	0	56	1663	1755
1970년대	5	0	57	1425	1487
1980년대	3	0	44	1686	1733
1990년대	3	0	61	1805	1869

[그래프 2] 부정서술어 형태의 연대별 빈도



[그래프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아니하-’의 빈도가 1920년대에 오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그와 동시에 ‘않-’의 빈도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1910년대까지의 자료가 3개의 텍스트 (李光洙의 ‘無情’, ‘어린 벗에게’, 金東仁의 ‘약한자의 슬픔’)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소설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신소설과 현대 소설의 문체적 차이가 부정서술어 형태의 사용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20년대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아니하-’와 ‘않-’의 역전 현상은 19세기에 재구조화된 ‘않다’가 1920년대에 들어와서 부정서술어로서 안정된 지위를 획득해 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3.2. ‘안’ 부정문의 유형에 따른 사용 빈도의 추이

#### 3.2.1. 부정문의 세 가지 유형

부정문의 유형은 부정소의 위치에 따라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행부정과 후행부정 어느쪽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 (9) ㄱ. 열 손을 찢딕 안이하면서도 주육을 마음껏 먹고 < 10-Ae000380>  
 ㄴ. 이번 삼십만 원만 주면 더는 달라구 안하겠다고 . <40-Ae000282>  
 ㄷ. 윤용규는 중시 까딱 않고 대답입니다 < 30-Ae000402>  
 ㄹ. 그런 아니꼬운 것도 달라고 않습니다. < 30-Ae000402>  
 ㄱ. 과장은 시원스런 대답을 아니하는 것이었다. <20-AAe000278 4 >  
 ㅂ. 그 애면, 저두 싫다구는 않겠지 <30-Ae000232>

(9ㄱ, 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각각 ‘어근+하-’의 구조를 갖는 용언 혹은 ‘피인용절+하-’의 구조에서 부정소 ‘안’이 어근 혹은 피인용절과 ‘하-’의 사이를 분리함으로써 접사 혹은 인용동사 ‘하-’에 대한 선행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구조화된 ‘않-’가 사용되는 (9ㄷ, ㄹ)과 같은 예의 존재는 부정부사에 의한 선행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또 다른 해석은 이들 구성이 ‘까딱하지 아니하-, 달라구 하지 안 하-’ 구성에서 ‘하지’가 생략된 후행부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ㄱ, ㅂ)처럼 명사구나 인용절에 조사가 연결되어 피부정 용언이 없이 부정서술어가 연결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그러나 어떤 언어형식을 설명할 때 ‘생략’이라는 기제를 도입하는 데는 그와 관련된 정밀한 제약과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설명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들 구성은 선행부정 후행부정 어느 한쪽에 집어넣기보다는 잠정적으로 제3의 유형의 부정으로 처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부정문의 유형은 선행부정, 후행부정, x하다 부정 세 가지가 된다.

### 3.2.2. 소설 텍스트의 내부 구조에 따른 부정문의 사용 실태

일반적으로 선행부정은 구어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지적되어 왔는 바, 이에 주목하여 소설 텍스트를 회화문과 지문으로 나누어 각 텍스트에서 부정문의 세 유형이 어떤 사용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회화문과 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부정문 유형별 빈도는 [표4], [그래프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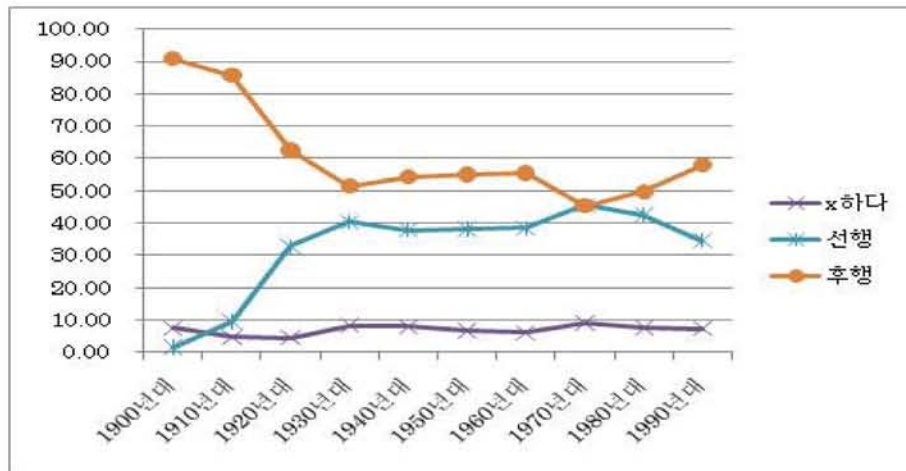
[표 4] 소설 텍스트의 하위 분류에 따른 부정문의 유형별 빈도

	회화문						지문					
	선행부정		후행부정		x하다부정		선행부정		후행부정		x하다부정	
	빈도(회)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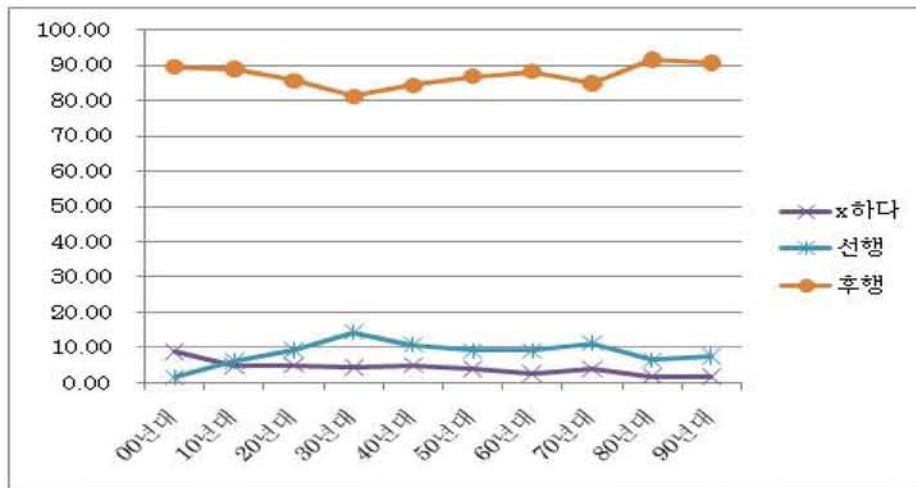


1900	11	1.63	612	90.8	51	7.57	9	1.5	524	89.6	52	8.9
1910	64	9.60	572	85.8	31	4.65	35	6.2	502	89.0	27	4.8
1920	172	32.82	328	62.6	24	4.58	118	9.3	1091	85.7	64	5.0
1930	259	40.34	330	51.4	53	8.26	291	14.4	1646	81.2	89	4.4
1940	161	37.79	231	54.2	34	7.98	109	10.7	859	84.4	50	4.9
1950	230	38.21	331	55.0	41	6.81	146	9.1	1397	86.9	64	4.0
1960	254	38.43	367	55.5	40	6.05	134	9.1	1297	88.2	39	2.7
1970	253	45.59	252	45.4	50	9.01	149	11.2	1132	84.9	52	3.9
1980	194	42.54	227	49.8	35	7.68	101	6.5	1435	91.7	29	1.9
1990	167	34.50	281	58.1	36	7.44	126	7.5	1516	90.7	29	1.7

[그래프 3] 회화문에서의 부정문 사용율의 추이



[그래프 4] 지문에서의 부정문 사용율의 추이



위의 [그래프 3]과 [그래프 4]를 보면 회화문과 지문 모두 후행부정이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용경향은 회화문과 지문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3]에서 뚜렷이 드러나듯이 회화문에서는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빈도 차이가 지문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선행부정이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이 입증되는 것이다. 또한 연대별 사용 추이를 보면, 1920년대부터 회화문에서의 선행부정 사용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그것이 유지되다가 1970년대, 1980년대 소설에

서 다시 한번 선행부정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1에서 살펴본 부정서술어의 형태별 사용양상과 더불어 1920년대 이전의 신소설 텍스트와 1920년대 이후의 근대 소설 텍스트의 문체적 차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와 80년대 소설이 이전, 이후의 소설텍스트에 비하여 선행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 시기 소설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전체 언어 사용 양상의 반영인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2.3. ‘x하다’ 용언의 부정문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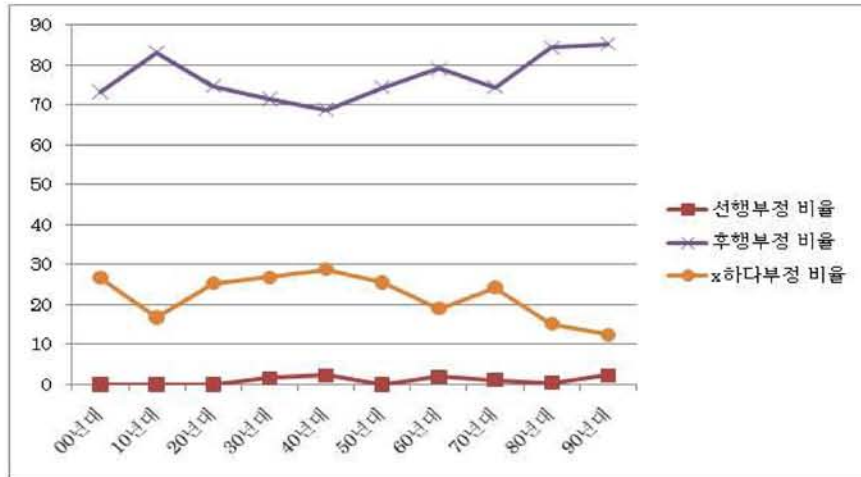
3.2.1에서 (9)와 같은 경우를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과 관련지어 선행부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다’의 생략이 일어난 후행부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9ㄱ, ㄷ, ㄹ)과 같은 ‘명사성 어근+하다’의 구조를 가지는 용언 즉 ‘x하다’ 용언들의 부정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자료에 보이는 ‘x하다’ 용언의 부정문 사용실태는 [표5] 및 [그래프5-7]과 같다.

[표5] x하다 용언의 부정문

	회화						지문					
	x	선행	후행	x비	선행비	후행비	x	선행	후행	x비	선행비	후행비
1900	51		165	23.61	0.00	76.39	52	0	98	34.67	0.00	65.33
1910	31	1	169	15.42	0.50	84.08	27	0	101	21.09	0.00	78.91
1920	24	1	38	38.10	1.59	60.32	65	0	135	32.50	0.00	67.50
1930	55	5	45	52.38	4.76	42.86	90	4	238	27.11	1.20	71.69
1940	35	6	31	48.61	8.33	43.06	50	1	117	29.76	0.60	69.64
1950	46	0	52	46.94	0.00	53.06	66	0	168	28.21	0.00	71.79
1960	40	6	37	48.19	7.23	44.58	39	2	173	18.22	0.93	80.84
1970	50	3	34	57.47	3.45	39.08	52	2	171	23.11	0.89	76.00
1980	37	2	36	49.33	2.67	48.00	29	0	221	11.60	0.00	88.40
1990	36	7	61	34.62	6.73	58.65	30	1	271	9.93	0.33	8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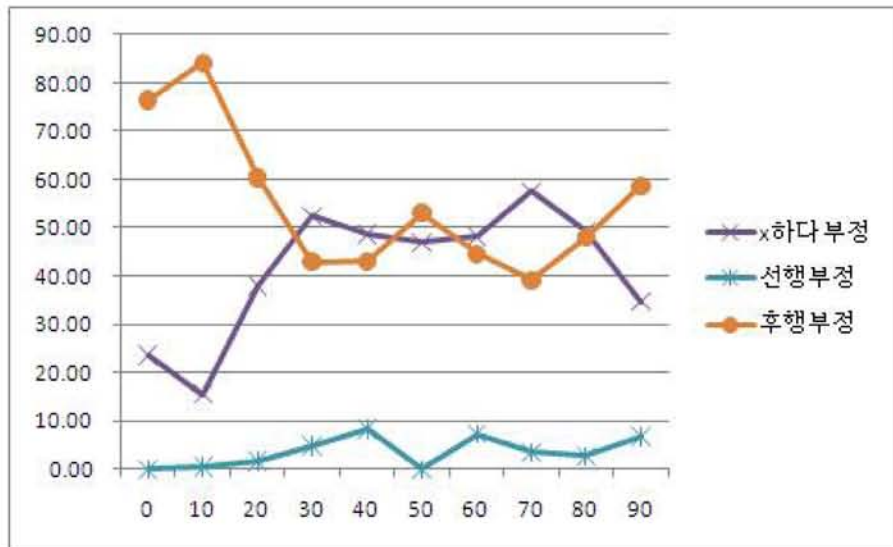
[그래프5] x하다 용언의 부정문(전체)

이 표와 그래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체 용언의 부정문 사용 경향과는 달리 이들 ‘x하다’ 용언은 선행부정이 거의 사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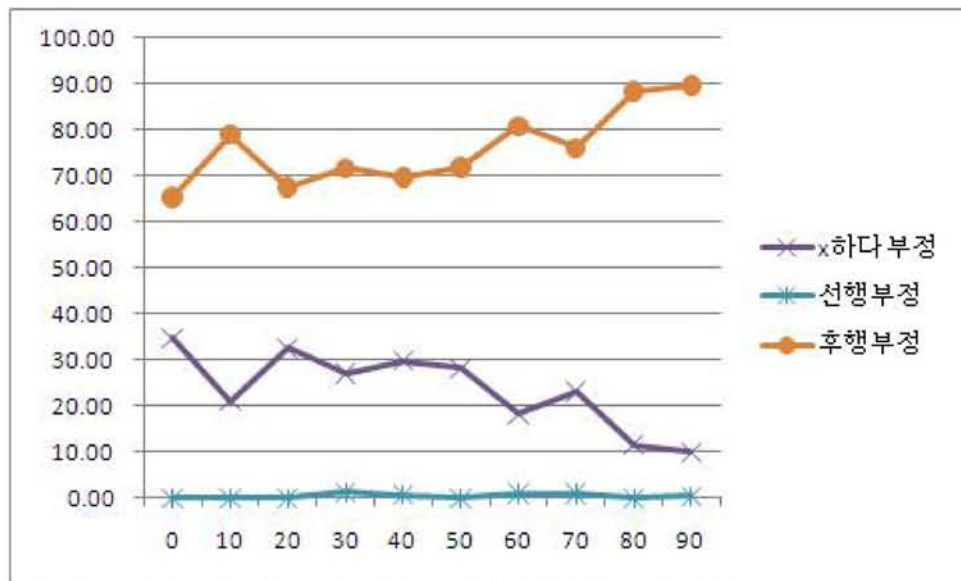
된 ‘x하다’ 용언은 선행부정을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x하다 부정의 존재이다. [그래프 6]에서 볼 수 있듯이 x하다 부정은 1920년대부터 회화문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년대 이후에는 후행부정보다 많이 사용되거나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전체 용언의 회화문에서의 부정문 사용 양상과 비교해 보면([그래프3]참조), ‘x하다’ 용언 부정문에서는 ‘x하다부정’이 선행부정이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프6] x하다 용언의 부정문-회화



[그래프7] x하다 용언의 부정문-지문

그런데, 선행 부정이 제약되는 ‘x하다’ 용언 가운데 선행 부정을 취한 예가 발견된다. 대부분 (10)과 같이 반어, 대조의 문맥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10) ㄱ. 이 자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우편국장까지도 흥미를 ,<40-Ab000405>  
 ㄴ. 「안 지긋지긋하구 어째요.» 아직도 자기 푸념이었다. <40-Ae000424>  
 ㄷ.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90-BRE00084-1>

이들은 대부분 ‘x하다’의 ‘x’ 부분이 1음절어이며 이들 용언에서는 ‘x하다부정’이 제약된다. 한 예로 ‘통하-’의 경우 후행부정 21예, 선행부정 8예임에 비해 ‘x하다부정’은 사용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어 모어화자의 직관으로도 ‘1음절어근+하다’ 용언이 ‘x하다부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자료에서 관찰된 선행부정을 취하는 ‘1음절어근+하다’ 용언의 예는 (11)과 같다.

- (11) 견세하-, 고하-, 그리하-, 근사하-, 당하-(6), 망하-, 변하-(3), 생각하-(3), 시작하-, 응하-, 중요하-(2), 지긋지긋하-(3), 지루하-, 창피하-, 취하-(5), 친하-(2), 통하-(8)

지금까지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면, ‘x하다용언’은 x가 1음절일 경우에는 선행부정을, x가 2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x하다부정’을 취하여 후행부정과 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행부정과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선행부정과 ‘x하다부정’이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x하다부정’의 성격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x하다부정’은 ‘x하다용언’의 어근과 ‘하다’ 사이를 부정부사 ‘안’이 뚫고 들어감으로써 형성되는 선행부정 구성으로서 선행부정 구성이 제약되는 ‘x하다용언’에서부터 일반적인 ‘x하다용언’까지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 4. 연대별 부정문 사용의 추이(2) ; ‘못’ 부정

일반적으로 ‘할 수 없음’의 의미를 가지는 ‘못’에 의한 부정은 단순히 부정의 의



미만을 가지는 ‘안’에 의한 부정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정문의 분포 제약은 주로 ‘안’에 의한 부정을 중심으로 선행부정이 제약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는데 그 결과 일부 형용사, 파생어, 합성어 등에서는 ‘안’에 의한 선행부정이 제약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 ‘못’에 의한 부정문에서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sup>10)</sup> 2) 용언의 형태론적 성질에 따른 선행부정의 제약과 그 연대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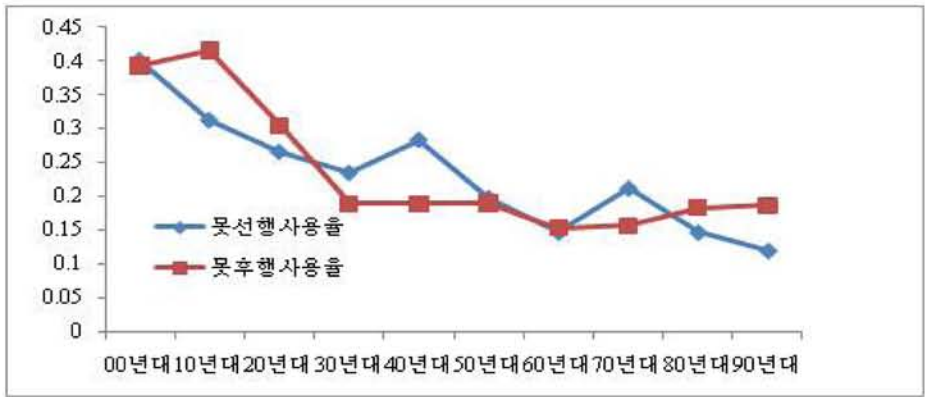
#### 4.1. ‘못’ 부정문의 유형에 따른 사용 빈도의 추이

먼저 ‘못’ 부정문의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을 조사하여 [표6], [그래프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 ‘못’ 부정문의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

	선행부정		후행부정			선행부정		후행부정	
	빈도	사용율	빈도	사용율		빈도	사용율	빈도	사용율
00년대	802	0.41	787	0.393	50년대	397	0.20	381	0.19
10년대	627	0.31	833	0.42	60년대	296	0.15	308	0.15
20년대	533	0.27	610	0.30	70년대	425	0.21	314	0.16
30년대	471	0.24	379	0.19	80년대	295	0.15	367	0.18
40년대	569	0.28	380	0.19	90년대	241	0.12	375	0.19

[그래프 8] ‘못’ 부정문의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못’ 부정은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의 대비는 연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후행부정이 선행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는 반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선행부정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후행부정과 선행부정, 80년대와 90년대에는 후행부정이 높은 사용율을 보임으로써 역전을 반복하고 있다.

각 용언별로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을 취하는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본코퍼스에서 사용된 용언 가운데 ‘못’ 부정문에 사용된 용언은 모두 1058종으로 그 빈도는 9390회였다. 빈도순으로 보아 상위 40위(빈도 35, 사용율: 누적비 62% 이상)까지의 용언을 제시하면 [표7]과 같다.

10) ‘못’ 부정에서도 ‘x하다용언’의 어근과 ‘하다’ 사이에 를 부정부사 ‘못’이 나타나는 ‘x하다부정언’이 관찰된다. 여기서는 3의 논의를 따라 이들을 선행부정의 한 부류로 보아 선행부정으로 처리하였다.

[표 7] ‘못’ 부정문의 용언 빈도

	용언	선행	후행	전체	누적비		용언	선행	후행	전체	누적비
1	하다	1494	88	1582	16.85	21	찾다	28	38	66	53.25
2	보다	322	201	523	22.42	22	이루다	24	37	61	53.90
3	되다	410	63	473	27.45	23	언다	23	34	57	54.50
4	알다	8	335	343	31.11	24	잇다	31	24	55	55.09
5	가다	208	62	270	33.98	25	받다	30	25	55	55.68
6	들다	145	74	219	36.32	26	주다	26	28	54	56.25
7	견디다	150	57	207	38.52	27	들다	31	22	53	56.82
8	살다	139	30	169	40.32	28	깨달다		51	51	57.36
9	먹다	96	53	149	41.91	29	면하다	6	39	45	57.84
10	이기다	86	57	143	43.43	30	나가다	26	17	43	58.30
11	쓰다	80	17	97	44.46	31	잡다	25	17	42	58.74
12	보다(보조)		92	92	45.44	32	생각하다	2	40	42	59.19
13	알아듣다	56	34	90	46.40	33	있다	20	21	41	59.63
14	좋다		90	90	47.36	34	차리다	29	11	40	60.05
15	참다	28	60	88	48.30	35	지나다	5	34	39	60.47
16	오다	57	31	88	49.23	36	죽다	9	29	38	60.87
17	자다	62	20	82	50.11	37	느끼다	14	23	37	61.27
18	만나다	38	41	79	50.95	38	나오다	14	23	37	61.66
19	내다	39	38	77	51.77	39	말다		37	37	62.06
20	믿다	46	27	73	52.55	40	알아보다	18	17	35	62.43

선행부정을 취하지 않고 후행부정만 취하는 용언 가운데 빈도9 (사용율80%) 이상의 용언 40개를 품사, 형태론적 특성 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못’ 후행부정만 취하는 용언 목록(상위 40개)

	補助用言	形容詞	動詞
單一語	보다(92), 말다(37), 내다(27), 있다(20), 버리다(12), 주다(10)	좋다(90), 같다(23), 많다(12), 크다(10)	깨달다 (51), 이르다(9)
合成語		점잖다(9)	벗어나다(17), 눈치채다(9) 오도가도(18)
派生語	아니하다(29)	변변하다(30), 편하다(21), 넉넉하다(14), 익숙하다(9)	의식하다(21), 금하다(19), 정하다(16), 발견하다(15), 이해하다(14), 억제하다(13), 피하다(12), 기억하다(12), 용납하다(12), 헤어나다(12), 대답하다(11), 건잡다(10), 분간하다(9), 짐작하다(9), 만족하다(9)
기타		그렇다(33), 없다(18)	어쩌다(11)

[표8]의 용언은 합성어, 파생어가 절반 이상이며 단일어에서는 형용사가 다수를 보임으로써, ‘안’ 부정에서의 선행부정 제약이나 형용사의 ‘못’ 선행부정 제약을 언급한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보조용언이나 대용언이 ‘못’ 부정에서 후행부정을 취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반면 단일어 동사 ‘깨달다’와 ‘이르다’는 필자의 직관으로는 ‘못’ 선행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코퍼스에서는 한 예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포의 편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후행부정을 취하는 빈도가 선행부정을 취하는 빈도를 상회하는 용언도 있다. [표 7]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것들이다. ‘알다, 찾다, 이루다, 얻다, 주다, 면하다, 참다, 만나다, 생각하다, 있다, 지나다, 죽다, 느끼다, 나오다’ 등이 그것인데 일반적으로 선행부정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루어진 ‘알다’가 선행부정을 취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알다’의 선행부정은 1900년대와 1930년대에 2회, 1910년대-1920년대, 1940년대와 1950년대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11)에 그 예를 보인다.

(11) ㄱ. 함상인을 터진 좌리만치도 못 알고 뿌릴 덕로 홀쭉려<00-Ae000382>

ㄴ. 덕기 자신에게 대한 남 다른 호의는 못 알아주고<20-AAe000278>

ㄷ. 자네 말파나 개 도야지만두 못 알았더라네<40-2BEXXX11-3>

한편, 선행부정만을 취함으로써 후행부정을 취한 예가 보이지 않는 용언의 경우는 (12)와 같은데, 그 빈도가 매우 낮아서 표본 코퍼스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빈도4이상; 잡숫다(7), 미더워하다(6), 내주다(4), 데리다(4),

빈도3; 물어보다, 가져가다, 만지다, 붙다, 꾸다

빈도2; 끓여먹다, 먹어하다, 삼다, 긴다, 찌다,

빈도1; 꿈적거리다 들리다, 태우다, 때이다, 끓이다, 녹이다, 뇌이다, 달히다, 박히다, 벗기다, 쏘이다, 구별하다, 대하다, 변하다, 잊어하다, 재직하다, 건너서다, 내보내다, 떠나보내다, 빌려주다, 사주다, 갈아입다, 건너가다, 건네주다, 내가다, 도망가다, 뜯어내다, 지우다, 계시다, 누다, 닿다, 건네다, 걸치다, 구슬리다, 꼬다, 닦다, 닿디다, 따다, 때우다, 못다, 밟다, 베다, 붙다, 비키다, 뿌리다, 싸다, 외우다, 잊업다, 지껄이다, 찌지다, 찌다, 치먹다, 치루다, 패다, 푸다

다만, ‘미더워하다’는 ‘못생기다, 못되다’ 등과 같이 ‘못+용언’ 구성의 어휘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로서 주목된다. ‘미더워하다’의 파생어기를 어간으로 가지는 형용사 ‘미답다’가 선행부정을 6회 후행부정을 2회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 어휘들은 일반적인 선행 부정 사용 제약과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못미더워하다’가 하나의 동사로 어휘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 4.2. ‘못’ 부정문과 ‘-ㄹ 수 없-’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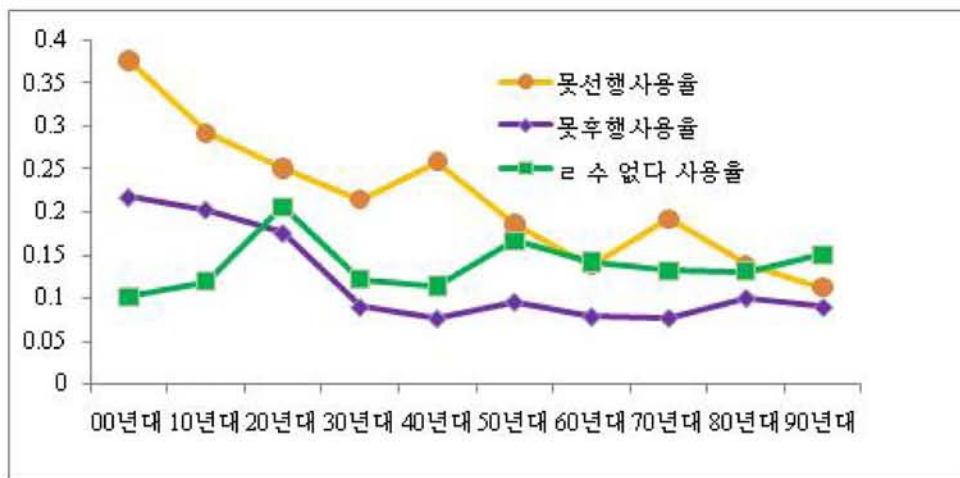
‘못’ 부정이 ‘할 수 없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ㄹ 수 없-’ 구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못’ 부정과 ‘-ㄹ 수 없-’ 구문을 모두 취하는 용언을 대상으로 각 표현의 사용 빈도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표 9], [그래프 9]와 같다.

[표 9] ‘못’ 부정과 ‘-ㄹ 수 없-’ 구문의 빈도

부정 연대	못						-ㄹ 수 없-	
	선행부정		후행부정		합계			
	빈도 (회)	비율 (%)	빈도 (회)	비율 (%)	빈도 (회)	비율(%)	빈도 (회)	비율 (%)
1900	802	0.40	787	0.39	1589	0.79	327	0.16

1910	627	0.31	833	0.42	1460	0.73	416	0.21
1920	533	0.27	610	0.30	1143	0.57	717	0.36
1930	471	0.24	379	0.19	850	0.42	475	0.24
1940	569	0.28	380	0.19	949	0.47	436	0.22
1950	397	0.20	381	0.19	778	0.39	697	0.35
1960	308	0.15	546	0.27	854	0.43	546	0.27
1970	314	0.167	623	0.31	937	0.47	623	0.31
1980	367	0.18	515	0.26	882	0.44	515	0.26
1990	375	0.19	599	0.30	974	0.49	599	0.30
합계	4763	0.24	5653	0.28	10416	0.52	5351	0.27

[그래프 9] ‘못’ 부정과 ‘-ㄹ 수 없-’ 구문의 빈도



1920년대에 들어서 ‘-ㄹ 수 없-’ 구문의 사용율이 높아져 ‘못’ 후행부정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후 ‘-ㄹ 수 없-’ 구문은 ‘못’ 후행부정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율의 추이에 있어서는 ‘못’ 후행부정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문 사용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서술어의 표기를 ‘아니하-, 아니-, 안하-, 았-’ 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아니하-’와 ‘았-’의 사용율이 1920년대에 급격한 역전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아니하-’의 사용율이 감소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았-’의 재구조화가 1920년대 이후 부정서술어로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안’ 부정의 선행부정은 회화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는데 1920년대 텍스트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 부정서술어 사용과 더불어 1920년대가 이전시기와 이후의 부정문 사용 변화의 한 지표가 되는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못’ 부정은 부정문 전체에서 후행부정이 선행부정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선행부정과 후행부정의 사용율이 연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후행부정이 선행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는 반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선행부정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후행부정과 선행부정, 80년대와 90년대에는 후행부정이 높은 사용율을 보임으로써 역전을 반복하고 있다.

넷째, ‘못’ 부정을 취하는 용언의 품사, 조어법상의 특성에 따른 선행부정의 제약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형용사, 보조용언, 파생용언 및 합성용언에서 선행부정에 대한 제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약은 되지 못하여, 개별 어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못’ 부정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ㄴ 수 없-’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1920년대에 들어서 ‘-ㄴ 수 없-’ 구문의 사용율이 높아져 ‘못’ 후행부정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후 ‘-ㄴ 수 없-’ 구문은 ‘못’ 후행부정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율의 추이에 있어서는 ‘못’ 후행부정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통하여,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본 20세기 한국어의 부정문 사용에는 일련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파악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변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용언의 사용 경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参考文献

- 구중남(1993), 「용언의 단형부정 제약과 형태, 의미, 화용론」, 『한국언어문학』 31:2-21. 서울: 한국언어문학회
- 金東植, (1980), 「現代國語 否定法の 研究」, 『국어연구』 42, 서울:국어연구회
- 김동식, (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99-116, 서울:한국언어학회
- 金東植, (1990), 「否定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452-466, 서울:국어연구회
- 김인숙, (1998), 「한국어 부정에 관한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 4: 177-204, 서울: 태학사
- 南潤珍, (2009), 「現代 韓國語 否定文 使用의 推移에 대하여-20世紀 小説資料를 中心으로-」 伊藤智ゆき編, 『朝鮮語史研究』, 東京: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 南豐鉉, (1976), 「國語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서울: 문법연구회
- 박형우, (2004), 『국어 부정문의 변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백미현, (2004), 「한국어 부정사 ‘안’ 과 ‘못’ 연구」 『언어연구』 20-2:63-83, 서울:

한국현대언어학회

- 서상규, (1984a),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 원리」, 『말』 9, 서울: 연세대 한국어학당
- 서상규, (1984b),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1-42, 서울: 한글학회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뿌리깊은나무
- 宋錫重, (1977), 「부정의 樣相의 否定的 樣相」, 『국어학』 5:45-100, 서울:국어학회
- 송석중,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서울:한글학회
- 安秉禧, (1959), 「中期語의 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서울:국어국문학회
- 윤혜준, (2001), 「부정법의 언어 유형론적 고찰」, 『언어연구』 21, 서울:서울대 언어연구회
- 이기용, (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서울:국어학회
- 李知英, (2004), 「부정부사 ‘안’ 과 부정서술어 ‘않-’의 형성」, 『語文研究』 32-3:165-186, 서울:한국어문연구회
- 이지영, (2008), 『한국어 용언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서울:태학사
- 任洪彬, (1973), 「否定的 樣相」, 『서울대 논문집』 5, 서울:서울대 교양과정부
- 任洪彬, (1978), 「否定法 論議와 國語의 現實」, 『국어학』 6, 서울:국어학회
- 任洪彬,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서울:국어연구소
- 임홍빈, (1998), 「부정법」, 『문법연구와 자료』 551-620, 서울:태학사
- 홍종선 (1997), 「근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서울:국립국어연구원
- 黃炳淳, (1980), 「국어 否定法の 통시적 고찰」, 『語文學』 40:119-136, 서울:한국어문학회

## Some Aspects of Negation Use in Korean Fiction Texts of 20th Century Korean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use of Korean negation, especially in fiction texts of between 1900' s and 1990' s. The issues are as follows: 1) The use of negative predicate '*aniha-*'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spelling and word-form. 2) The use of negation types with regard to the text types 3) The 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mos*-negation and that of '*-l-su-eops-*' expression, which is semantically very near to the other.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like these : 1) The negative predicate has four word forms of '*aniha-*, *ani-*, *anha-*, *anh-*'. By contrast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anh-*', '*aniha-*' started to decrease rapidly in the 1920' s. By the 1970' s, the word form '*aniha-*' had not been used any more. These all shows the procedure of the establishment of '*anh-*' as a negative predicate. 2) The backward *an* negation shows a relatively high frequency in conversational contexts, starting from 1920' s. It could be told that 1920' s is a critical period of the change in the use of negation. 3) Some restrictions on backward *mos* negation is observed in adjectives, auxiliary verbs, derived verbs and compounded verbs. But there are also some lexical idiosyncrasies. 4) There seems to be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mos*-negation and '*-l-su-eops-*' expression, which is semantically very near to the other. Since 1920' s, '*-l-su-eops-*' surpassed *mos* forward negation in the usage rate.

Keywords: *an* negation, *mos* negation, forward negation, backward negation